

ABS, 한국 오퍼 1650달러로 시작!

CFR FE Asia 1610-1630달러로 30달러 상승 ... LG석유화학 가동 이상무

ABS 가격이 8월25일 CFR FE Asia 톤당 1610-1630달러로 30달러 상승했다.

아시아 ABS 시장은 9월 거래강세 및 Styrene 상승세를 타고 극동 아시아 및 동남아 지역에서 30-40달러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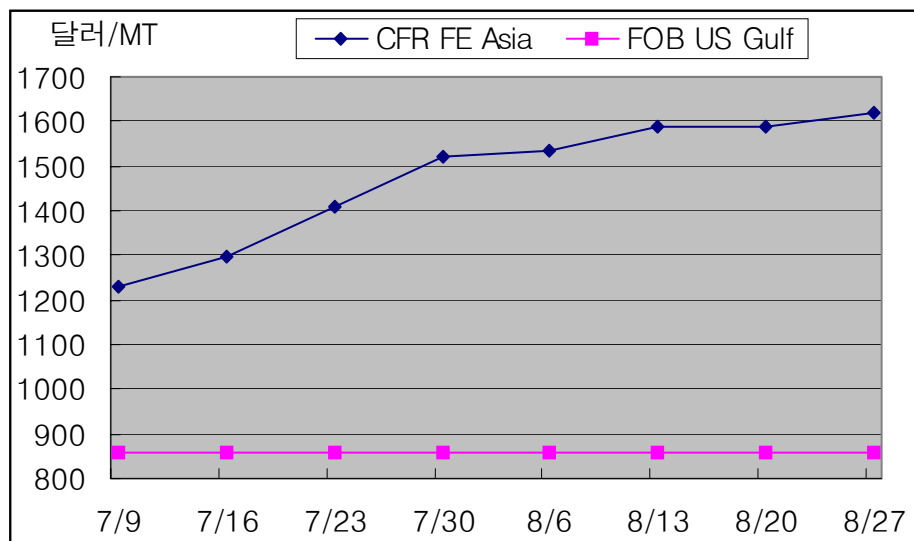
한국 한 생산기업의 9월 오퍼가격은 CFR China 톤당 1650달러에서 시작한 반면, 말레이시아 생산기업은 1680달러를 요구했는데, 지난주 100-550톤 거래가격인 1600-1610달러에 비해 50-70달러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타이완의 한 생산기업은 9월 타겟가격을 CFR 톤당 1600-1620달러로 20달러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생산기업도 9월 오퍼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홍콩에서 Prompt ABS 거래가 톤당 1620-1630달러(THC 포함), 즉 CFR Hong Kong 톤당 1610-1620달러에 성사됐으나 홍콩 무역상들의 9월 거래물량에 대한 거래열기는 저조했으며 동남아 가격도 홍콩가격 수준에 머물렀다.

LG석유화학의 여천 BTD 생산라인 폭발에 따른 공급피해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LG석유화학은 폭발 이후에도 가동률을 감축한 상태로 BTD 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ABS 가격추이



한편, 유럽 ABS 가격은 8월25일 FOB NWE 톤당 2034-2095달러로 4달러 하락했으며 미국가격은 FOB US Gulf 톤당 850-870달러로 여전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9/02>